

# KIA 외국인 투수 잔혹사 끝나나... '풀타임 빅리거' 영입



### 월 크로우와 100만달러 계약... 선발진 핵심 역할 기대 ML 4시즌 선발 10승·평균 자책점 5.30... 최고 153km

'풀타임 빅리거' 월 크로우(사진)가 '호랑이 군단'의 외국인 투수 잔혹사를 끝낸다.

KIA 타이거즈가 7일 새 외국인 투수 월 크로우(Wil Crowe·30·우투우타)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60만 달러, 옵션 20만 달러 등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을 마무리했다.

미국 테네시주 킹스턴 출신인 월 크로우는 신장 185cm, 체중 108kg의 체격을 갖추고 있으며 메이저리그에서 4시즌 마이너리그(이하 트리플A)에서 5시즌 동안 활약했다.

메이저리그 통산 94경기에 나온 그는 선발로도 29경기에 출장해 10승 21패 16홀드 5세이브, 평균

자책점 5.30을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선발 59경기 포함 75경기에서 21승 16패 1홀드 평균자책점 4.01의 성적을 냈다.

특히 지난 2021시즌에는 전 소속팀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선발 로테이션에 가세, 선발로 25경기를 소화했다.

올 시즌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5경기에 출장한 월 크로우는 1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4.66을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17경기(선발 3경기)에서 3승 1패 1홀드 평균자책점 3.86을 남겼다.

'막강 외국인 원투펀치' 구성이라는 큰 숙제를 안았던 KIA는 월 크로우를 영입하면서 2024시즌 퍼

즐의 큰 조각을 하나만 남겨뒀다.

KIA는 지난 12월 외국인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Socrates Brito·31)와 계약금 30만, 연봉 50만, 옵션 40만 달러 등 총액 120만 달러에 재계약을 하면서, 3년 연속 동행을 확정했다.

눈길은 '마운드'에 쏠렸다. KIA는 외국인 투수들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대했던 가을을 보내지 못했다.

2년 연속 시즌 중반에 외국인 투수진을 교체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교체 선수들도 기대했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지난 시즌 KIA 유니폼을 입은 4명의 외국인 투수 메디나-앤더슨-파노니-산체스가 합작한 승수는 16승, 이닝도 283이닝에 그쳤다.

앞서 2021시즌에는 '특급 외국인' 투수로 KBO 리그를 평정했던 브루스가 대마초 성분인 든 담배를 반입했다가 퇴출당하는 등 KIA는 외국인 투수 고민을 이어왔다.

2023시즌이 끝난 뒤 KIA는 대체 선수로 합류했던 산체스를 보류 명단에서 제외했다. 2년 연속 대체 외국인 선수로 KIA에 합류했던 파노니는 보류 선수로 남겨졌지만, 파노니가 시카고 컵스와 마이네리그 계약을 하면서 외국인 투수 새 판을 짜게 됐다.

순위 싸움의 주요 전력인 '외국인 원투펀치'의 한 자리를 선발 경험에 갖춘 '빅리거'로 채운 KIA는 반전의 2024시즌을 노리며 조만간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KIA 심재학 단장은 "월 크로우는 뛰어난 구위가 장점인 우완 투수로 최고 구속 153km의 빠른볼과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가 위력적이다. 또 메이저리그에서 풀타임 선발로 활약한 만큼 경험이 풍부해 선발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기록 쓴' 최형우 '전설 쓰다'

최고령(41세) 비FA 다년 계약  
1+1년 연봉 20억 등 22억원  
옵션 충족 땀 2025년 자동 연장

'기록의 사나이' 최형우가 최고령 비FA 다년 계약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KIA 타이거즈가 지난 5일 외야수 최형우(41)와 계약 기간 1+1년, 연봉 20억원 옵션 2억원 등 총 22억원에 다년 계약을 맺었다. 최형우가 2024년 옵션을 충족하면 2025년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최형우는 역대 최고령 비FA 다년 계약에 성공하면서 고향팀에서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구준함'의 대명사로 통하는 최형우는 지난 2017년 KBO리그 첫 '100억 사나이'로 KIA 유니폼을 입었다.

계약기간 4년에 계약금 40억원, 연봉 15억원 등 총 100억원을 받고 삼성에서 KIA로 이적한 그는 첫 FA 4시즌 동안 561경기에 나와 타율 0.335, 677안타 96홈런 424타점을 기록하며 '모범 FA'가 됐다. 계약 첫해 KIA 'V11'을 이끈 다이내마이트타선 중심에 섰고, 계약 마지막 시즌에는 140경기에 출전해 0.354의 타율을 찍으며 '타격왕'에도 등극했다.

구준함의 활약을 바탕으로 최형우는 2020년이 끝난 뒤 다시 한번 FA 계약에 성공했다. 최형우는 계약기간 3년, 총 47억원(계약금 13억원, 연봉 9억원, 옵션 7억원)에 KIA와 두 번째 FA 계약을 맺었다.

2021시즌 막막 이상으로 위기의 순간도 맞았지만 최형우는 지난 시즌 '베테랑의 힘'을 보여 주며 반전에 성공했다. '부상 병동'이 된 KIA



최형우(오른쪽)가 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계약을 체결한 뒤 KIA 타이거즈 심재학 단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타선을 굳게 지킨 최형우는 121경기에 나와 타율 0.302, 17홈런, 81타점, 64득점, 130안타를 기록하며 견재함을 과시했다. 역대 최다 타점과 최다 2루타 기록도 경신하면서 '기록의 사나이'로서의 면모도 보여줬다.

아쉽게 부상으로 기대했던 '가을잔치' 꿈은 이루지 못했다. 9월 24일 KT와의 홈경기에서 내야 땅볼을 치고 1루까지 전력 질주를 했던 최형우는 1루수 박병호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왼쪽 쇄골 분쇄 골절상을 당해 9월 26일 수술대에 올랐다.

팀은 나성범에 이어 최형우 그리고 박찬호까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면서 순위 싸움의 동력을 잃었다.

세 번째 계약으로 광주에서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게 된 최형우는 "구단에서 다년 계약이라는 좋은 조건을 먼저 제시해 주어 감사하다"며 "가을야구의 향상을 광주에서 들을 수 있도록 팀 동료들과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선수 생활을 하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잃지 않고 한결같았던 선수로 타이거즈 팬들에게 기억되고 싶다"고 계약 소감을 이야기했다.

한편 KIA는 앞서 4일 내야수 김선빈과 계약 기간 3년 총액 30억원(계약금 6억원, 연봉 18억원, 옵션 6억원)에 FA계약을 마무리한 데 이어 최형우와의 동행도 확정하면서 경험이 어우러진 '막강 타선'을 지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연패 날리고 싶은데, 또...

페퍼스 안방서 새해 첫 경기  
홍국생명에 1-3으로 져  
14연패 수령 속으로



페퍼스가 새해 첫 홈 경기에서 변화한 모습을 보이며 선전했지만 아쉽게 패했다.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스축은행 AI페퍼스는 7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홍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3(25-23 25-27 16-25 22-25)으로 져 14연패를 기록했다.

조트린지 감독이 이날 강조한 키워드는 바로 '원탑'이었다. 그리고 페퍼스는 '원탑'다운 팀워크를 보여주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번 경기에서 앞서 페퍼스는 3일간의 맹행전에 돌입했던 만큼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펼친 1세트와 치열했던 2세트가 위안이 됐다.

13연패를 탈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득 안고 시작된 경기였다. 이날 페퍼스는 오지영이 결정하고 채선아가 리베로로 선발됐다.

1세트 홍국생명 김연경이 깊게 내린 공이 네트를 넘기지 못하며 페퍼스가 첫 득점했다.

각을 단단히 다진 페퍼스는 8-6으로 앞서며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가졌다. 홍국생명이 11-11까지 따라잡았지만 페퍼스는 끈끈한 수비를 보여줬다.

페퍼스가 다시 14-12로 앞선 상황, 야스민이 대각선으로 날린 공격으로 또 다시 점수차를 벌렸다. 19-15에서 야스민이 후위 공격에 성공하며 페퍼스가 20득점에 먼저 달렸다.

1세트 홍국생명의 범실은 6개로 페퍼스(범실 3개)보다 두 배 많았다. 야스민은 1세트에서만 11득점을 올려내는 활약을 보였다.

2세트 초반 페퍼스는 기세를 잡고 경기를 이어갔다. 13-10에서 상대 엘레나가 머뭇거리다 수비에

실패했고, 이어서 야스민이 엘레나의 공을 블로킹 득점으로 바꾸는 데 성공하며 15-10으로 점수차가 벌어졌다.

야스민의 공으로 이번에도 페퍼스가 20점에 먼저 달았다. 하지만 2세트 후반부터 홍국생명이 감을 되찾았다. 레이나의 연이은 득점으로 페퍼스는 24-23까지 추격당했다.

야스민이 24-24로 동점을 만들어냈고, 이어 나온 오픈 공격으로 페퍼스는 25-24로 앞섰다.

하지만 페퍼스가 범실을 내며 다시 25-25가 됐고, 이어 홍국생명의 엘레나와 레이나의 득점으로 페퍼스는 아쉽게 2세트 차지에 실패했다.

세트 점수를 하나씩 나눠 가지며 3세트가 시작됐다.

페퍼스는 7-12까지 벌어진 점수차를 좁히기 위해 부지런히 따라갔지만 홍국생명이 달아나며 20점에 먼저 달았다. 기량을 펼치지 못한 페퍼스는 3세트를 16-25로 홍국생명에 내줬다. 3세트에서 페퍼스는 7개의 범실을 냈다.

4세트 페퍼스는 다시 기운을 되찾으며 경기를 리드했지만 15-13에서 홍국생명에 연달아 5득점을 허용했다. 페퍼스는 4세트에서도 3세트와 동일한 7개의 범실을 내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페퍼스의 추격에 홍국생명은 잡지 않았고 레이나의 킥 오픈을 마무리로 4세트가 22-25로 끝났다.

조트린지 감독은 이날 경기에 대해 "잘 싸웠고 열심히 했지만 끝까지 마지막에 마무리 지을 줄 알아야 될 것 같다"며 "2세트를 가져오지 못한 순간부터 전반적인 에너지가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초반부터 좋은 기세를 보이며 연패 탈출의 간절함을 보였던 페퍼스는 결국 14연패 수령에 빠졌다.

최하위인 페퍼스는 이날 패배로 2승 19패 승점 7점을 기록했고, 2위 홍국생명은 17승 5패 승점 47점으로 1위 현대건설(16승5패 승점 50)과의 승점을 3점 차로 좁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새해 첫 승 언제쯤



### 핸드볼 H리그 인천시청과 무승부 '1무 1패'

광주도시공사가 새해 재개된 핸드볼 H리그에서 1무 1패를 기록했다.

도시공사는 7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023-2024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 인천시청과의 경기에서 24-24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지난 5일 '디펜딩 챔피언' 삼척시청과의 맞대결에서 21-33으로 졌던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무승부로 승점 1점을 더했다.

올 시즌 출범한 H리그 여자부는 지난해 11월 11일 SK슈가글라이더즈와 부산시설공단과의 개막전으로 막을 올렸지만 세계선수권대회 때문에 두 경기만 치른 뒤 휴식기를 가졌다.

전반 1분 인천시청 신인 임서영이 이날 경기 첫 골을 장식했다. 김지현은 전반 2분 7m드루우에 성공하면서 도시공사의 첫 득점에 성공했다.

전반 8분 2-3에서 김지현이 다시 한번 골을 기록했다. 도시공사 골키퍼 박조은이 강은서의 슈

팅을 저지한 뒤 서아루가 오른쪽 골대를 뚫으면서 4-3이 됐다.

인천 골키퍼 이가은의 선방에 막혔던 도시공사가 이아현과 김지현의 득점으로 3점 차까지 달아났다.

하지만 인천시청 신은주와 신현진이 연달아 득점에 성공했고, 도시공사 실책 뒤 전반 19분 차서영의 동점골까지 나왔다.

전반 20분 김수민의 골로 다시 앞선 도시공사가 서아루의 스틸과 김지현의 룡슌으로 9-7을 만들었다. 김금정이 연달아 골대 불운에 울었지만, 박조은의 슈퍼 세이브 뒤 득점에 성공하며 10-7.

전반 막판 시미즈 아이카가 빠른 움직임으로 상대를 흔들었지만 상대 골키퍼 이가은의 잇단 선방에 12-9, 3점 차로 전반전이 마무리됐다.

후반 시작이 좋지 못했다. 도시공사가 오버타임으로 공격권을 내줬고 두 번째 공격에서는 패스 미스가 나왔다.

반면 인천시청은 후반 2분 신다래의 골로 포문

을 연 뒤 이효진의 골까지 6연속 득점에 성공했다.

12-15까지 밀린 도시공사, 후반 10분 이한솔의 후반 첫 득점이 나왔다. 15-15에서 빈 골대를 향해 김금순이 역전골을 넣었고, 수직 우위 속 도시공사가 17-15를 만들었다. 상대 실책으로 만들어진 속공 기회를 살리면서 19-16.

하지만 골키퍼 이가은이 도시공사를 막았다. 김철희의 속공에 22-21, 후반 25분 신은주에게 동점골까지 내줬다.

이후 김지현과 임서영의 맞대결 구도 속 23-23이 됐다. 후반 27분 아이카의 스틸로 속공에 나선 도시공사가 이가은의 슈퍼세이브에 다시 한번 땅을 쳤다. 결국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두고 이효진에게 골을 허용하면서 23-24. 도시공사가 경기 종료 30초를 남겨두고 파울을 얻어냈고, 김금순이 이가은을 뚫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리고 상대 실책으로 다시 한번 공을 잡은 골키퍼 박조은이 회심의 룡슌을 선보였다. 아쉽게 골이 골대 맞고 나오면서 경기는 24-24 무승부로 끝났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